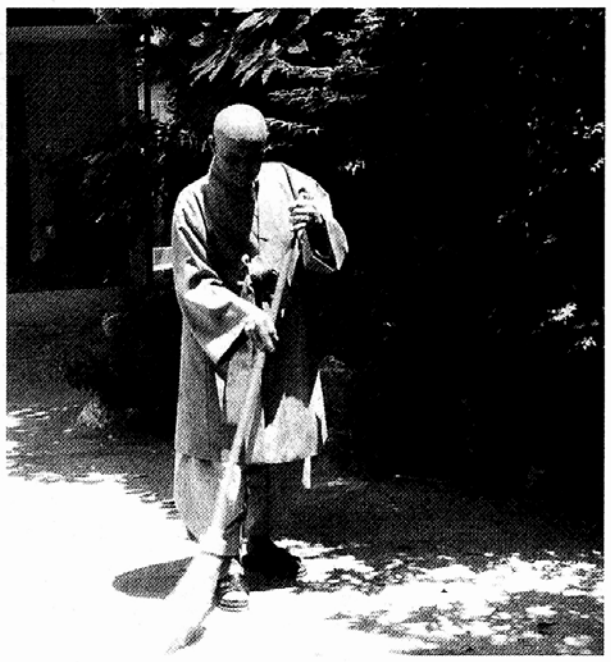
성공스님은?

전국 포교당 돌며 전법 경전 독송테이프 제작



1926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신 스님은 1941년 운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43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들어서기전 스스로의 수행을 위해 49년 금정선원 하안거 성만을 시작으로 정혜사, 도리사, 상원사 등 제방선원에서 30안거를 성단했다.

이후 55년부터 충무포교당, 충무용화사, 마산 포교당을 맡아 포교에 주력하는 한편 전국 각지를 다니며 법문을 하는 법사로도 유명하다. 특히 스님의 법문은 풍부한 예화와 뛰어난 유머 감각이 돋보여 전국 각지에서 스님을 초빙하는 곳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수 76세인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법문을 하러 전국을 다니고 있을 정도. 이같은 법문을 통한 포교외에도 73년에는 금강경, 부모은중경, 천수경, 아미타경 등을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해 가정포교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71년 이후 안양사에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지금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간단한 운동후 새벽예불을 모시는 것을 빠뜨리지 않으며 정진을 이어오고 있다.



◇무슨 일이든 손수하시고 검소한 성공스님의 일상은 주위 스님과 신도들의 귀감이 되고있다.

"예수재 의식 지냈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생활을 늘 예수재로"

"지금 사람들 살아가는 것은 안개속을 걸어가는 형국입니다. 안개속에서는 자기자신만 보이지 옆의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안개가 짙으면 짙을수록 옆은 더 안보이죠. 여기서 안개란 자기 욕심이고 이기심이며 사리사욕입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 차면 안개처럼 자신의 눈을 가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기심을 전환해서 이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모두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기심, 사리사욕을 파하는 것이 파사(破邪)라고 보는 것이죠."

공양을 마친 신도들이 한사람 두사람 스님이 앉아 있는 마루에 올라올 때 마다 반갑게 맞아 주신다. 어려움없이 대해주시는 친근감 때문인지 신도들의 왕래가 아주 자유롭다. 4년전부터 스님을 모시고 있는 각진 스님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가리는 법이 없으며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또 걸인이 와도 한결같이 반갑게 맞아주는 걸 보며 배우게 된다"고 했다. 실제로 스님의 방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다. 누가 찾아오든지 반갑게 맞으며 평소 그려놓은 달마상이나 난을 선물로 주시고 신심을 고양시키는 법문을 해주시는 등 포교를 멈추지 않으신다.

스님은 출가이후 53년동안 큰절 주지 한번 맡지 않았다. 오로지 각 지역 포교당 주지직을 맡아 법사로서 법문하는 것을 전부로 알고 지내왔다. 어느 곳이든 법사로 초청하는 곳이면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갔고 심지어 4년전에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에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룡사까지 가서 법문하기도 했다. 그때를 회고한 안양사의 한 신도는 "병원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펄쩍 뛰는데 법문을 하다가 쓰러져 열반에 드는 한이 있어도 가야 한다며 가시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며 스님의 포교에 대한 열정에 고개를 내둘렀다. 제방 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한 스님이고 보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철저한 면모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오랜 수행정진의 결과 '혼자서만 성불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며 지혜를 닦으면서 반드시 전법을 하고 복을 지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겨났고 그것이 바로 전법의 행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신 스님은 새벽예불, 사시예불을 빠뜨려 본적이 없고,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법문을 다니신다. 법문을 통한 포교도 모자라 이제는 평생 모은 시줏돈으로 '관음원'이라는 복지재단을 설립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로원을 지어 물질과 마음을 두루한 회향도 준비해 놓은 상태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은혜 갚으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도리입니다."

양로원 불사는 효를 행하지 못하는 세인들을 일깨우는 일이며 부처님 은혜 갚는 또 다른 길이기도 하다.

"요즘 스님들은 불사도 많이 하고 법문도 잘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방편임을 알아야 해요.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이 다 방편이니까요. 거짓말의 이름이 세가지가 있는데 남에게 해를 주는 거짓말을 사기라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것은 수단이라고 하고 남에게 해도 주지 않고 자신의 이익도 꾀하지 않는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100%로 전부 남을 위하는 것이라야 방편이라 할 수 있어요. 스님들의 경우 전부 중생 제도를 위한 마음이어야 비로소 방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스님네들은 방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거나 신도들에게 해를 주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아무리 큰스님이 큰 불사를 한다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은 방편이 아닌 사기요, 수단일 뿐입니다."

"대형불사 한답시고 다른 사람에 피해주면 방편아닌 수단돼요"

윤달 예수재에 대해 신도가 질문을 하자 스님의 대답은 명쾌했다.

"윤달이라고 생전예수재를 많이 하는데 예수재라는 뜻 그대로 미리 두는 수행을 하자는 것인데 닦는 일을 윤달에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몸 받아 인간세상 나올적에 명부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진 빚을 내 몸 살아 있을 때 갚는다고 해서 예수재인 것이고 천도재는 돌아가신 후에 자손들이나 다른 사람이 갚아 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하는 천도재보다는 살아 있는 동안 내가 내 빚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예수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의식의 예수재를 지냈다는 자체만으로 만족하기 보다는 일상생활 자체가 예수재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빚갚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수재에 대한 법문을 이어가던 스님은 신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육조스님의 이야기를 하셨다.

"육조스님이 길을 가다가 잠을 자는데 강도가 들이 닥쳤어요. 육조스님은 강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돈을 준비해 두었거든. 강도가 칼을 들이대니 육조스님은 준비해 둔 돈꾸러미를 건네면서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빚진 적은 있지만 목숨은 빚지지 않았으니 이 돈을 받고 그만 가시오' 했거든. 그처럼 우리는 우리가 기억은 못해도 많은 것을 빚지고 이 세상에 왔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온 이후로도 보리쌀을 빌렸으면 보리쌀이 빚이 되고 돈을 빌렸으면 돈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이,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이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을 사는 것이 곧 그 빚을 갚겠다는 정신 하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넓은 의미의 예수재라고 스님은 강조했다."

모든 불자들은 살아 있는 매일 매일이 예수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진 빚을 갚겠다는 마음이 철저해지면 나중에는 진 빚을 갚고도 남아 나중에는 저금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금이란 다른 말로 하면 복짓는 것을 말합니다. 막연히 나중을 기약하면서 오늘 힘쓰지 않거나 다음 생을 말하며 이 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아직 잠도 들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꿈을 꿀 것인가를 물으며 꿈꾸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니 오늘 부지런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원타스님

해인사에는 산내 암자가 16개 있다. 그 중에 청량사는 해인사 경내에 있지 않고 매화산과 접해있는 천불산(일명 남산)의 남쪽 기슭에 위치해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산기슭에 버려진 듯 폐사 직전의 초라한 암자였는데, 원타 스님이 주지를 하면서 중창의 원력을 세워 지금의 모습으로 일신하게 되었다. 짜임새 있는 가람의 규모나 불사의 내용으로 볼 때 원타 스님이 아닌 그 누구도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원타 스님은 평소 매우 과묵하다. 그러면서도 주변을 두루 살펴 챙기는 모습이 마치 맏형 같다. 스님은 수좌 생활을 하면서도 종단과 해인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크고 작은 소임을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사에 두루 밝다.

해인사에서는 매년 2번, 산중 대중들이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에 용맹정진을 한다. 7일동안 잠을 전혀 자지 않고 용맹정진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살벌할 정도로 엄하다. 어느 산중이던 안거 기간에는 용맹정진을 하지만 특히 해인사는 전국 사찰 중에서 대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더욱 활기가 있다. 성철 큰스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학인들과 신참들은 용맹정진 시작전날 3000배 절을 한 후 용맹정진에 합류하게 했다. 바늘 끝만 스쳐도 도 통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

이·사 두루 밝아 소임 철저 안거 회향 5백명 대중공양

감으로 한껏 고조된 분위기는 온 도량을 뜨겁게 달구게 된다. 용맹정진은 행자에서부터 방장스님에 이르기까지 산중의 모든 대중이 함께 한다. 행자는 후원에서 하고 정진대중은 좌복 위에서, 소임자들은 소임처에서 한다. 이 기간동안에 다리펴고 편히 누워 자는 사람은 대중 아니기를 각오해야 한다. 예전에 어린 사미승이 용맹정진하던 3일째 되는 날 홀연히 사라졌다. 짐 싸 가지고 도망간 것도 아닌데 도대체 행방이 묘연했다. 용맹정진 중이라 달리 곳곳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나타나기만 하면 참회시킨 후 산문 출송을 시키려고 별렀다. 용맹정진이 다 끝나도 나타나지를 않았다. 급기야는 대중들이 온 도량을 샅샅이 뒤지며 찾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미승이 쌀 뒤주 안에서 5일 동안 깨지도 않고 죽은 듯이 자고 있었다. 달랑 안아다 조실 스님 방에 편히 재웠다.

이렇게 7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고 나서 회향하는 날은 모든 대중들이 산행을 한다. 산행코스는 해인사에서 출발하여 신부락을 거쳐 남산을 타고 가서 청량사에 도착 후 점심공양을 한다. 점심공양 후 큰절로 돌아오는 팀과 다시 남산을 거쳐 가조에 있는 고견사로 넘어가는 팀으로 나누게 된다. 청량사의 대중공양은 특별하다. 원타 스님은 해마다 2차례 씩 500여 대중의 용맹정진 회향 대중공양을 흔연한 마음으로 며칠씩 준비하여 차려놓고 대중들을 지극히 외호한다. 원타 스님이 다른 곳의 선원에 결제하러 가서 사중에 없을 경우에도 이 대중공양 만큼은 꼭 챙긴다. 산중에 살다보면 대중공양을 가끔씩 내는 것이 생소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원타 스님이 용맹정진 회향 때 내는 대중공양은 특별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된다. 그 준비 과정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것이 매우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결코 겉치레나 체면치레로 하는 공양이 아니다. 부처님께 수자타가 유미죽 공양을 올리던 것 같은,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고 느낌이 있는 공양이다.

원타 스님은 출가이래 지금껏 좌복을 떠나본 적이 없는 수좌이면서도 종단과 해인사의 소임을 몇 차례 본적이 있다. 해인사에서 총무와 재무소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재무소임을 보다 한철이 지난 후 간단한 메모 한 장만 남기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내용인즉 "숫자만 보면 머리가 띵 해지고 골이 아파서 더 이상 재무소임을 볼 수가 없다. 이제 사중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으니 다



시 좌복 위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다. 그후 또 다시 마지못해 총무소임을 맡게 되었는데 두 철이 지난 후 극구 소임을 사양해도 뿌리치기가 어렵자 어느날 홀쩍 인도로 떠나 부다가야에서 정진을 하다가 그 이듬해 돌아왔다. 소임이나 직위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소임을 맡게되면 종단의 상황과 사중의 대소사 일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남다르다. 흔히 재무나 총무 같은 소임을 맡게되면 데데해지고 그만두기 싫어하기 일쑤인데, 원타 스님이 어느날 소임을 버리고 정진을 하기 위하여 홀쩍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성철 큰스님 문하에 입문하여 그분의 칼날 같은 정진 일념으로 훈습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간혹 도반들이 어떠한 사안으로 옥신각신 논쟁을 하는 때에는 한참동안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제 그만 치아라. 중이 무신 놈의 이론이 그래 번다하노" 나무라며 말리고는 한다. 수행자로서의 정진 이외의 세속적인 삶의 가치를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수좌, 그가 이번 결제부터 조계종립 선원인 문경 봉암사 주지를 맡아 수좌들의 정진 생활을 외호하게 되었다. 늘 솔향기 같은 수행자의 담백함과 진솔함을 지닌 원타 스님이 있기에 봉암사의 솔바람소리는 더욱 청아할 것이다.

▩정취암 한주

진성 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청옥, 황옥, 백옥)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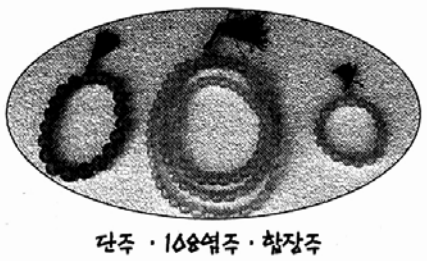
▶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청 옥


백 옥


황 옥


장수거북(청옥·화옥)


단주 · 108염주 · 합장주


두꺼비(청옥·화옥)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e-mail : LJU729@hanmail.net

새 천년의 불국 정토를 역어갈 십층 보탑과 오백나한 부처님 및 10층 오백 보탑과 오백지장 부처님 봉안 대불사 안내


말법중생을 제도하고 모든소원을 들어주는
나한부처님과 10층보탑 각한조에 일금 35만원


사람으로 왔다가는 영가와 중음신을 제도하는
대원 본존 지장부처님과 10층보탑 각 한조에 일금 35만원

※ 본 종단의 뜻을 같이하고 만중생을 제도할 달마종에 몸을 담고자 하는 도반과 인연있는 후원자 및 복지자의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귀의삼보하옵고.
한국불교 달마종 총본산 달마선원에서는 2001년 새천년이 시작되고 천년에 한번드는 신사년 계사월이 뱀이 몸은 하나요 머리는 둘이되는 금년 윤달에 나한부처님과 지장보살님과 십층보탑을 봉안 불사에 동참한 인연자는 죽어도 죽지않고 늙어도 늙지않으며 시공을 넘어 초연의 경지에 도달하여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일들이 몽땅 이룰수 있는 대작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대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구 창조와 더불어 사람으로 태어난 침륜과 자성이 삼독의 번뇌로 오염된 업장과 병고에 고통의 숙박을 벗고 전생, 금생, 내생으로 이어지는 영겁의 윤회로 악연과 고통의 굴레를 벗고 다시 태어나는 거부장자 귀족의 밝은 지혜의 몸을 받아 태양과 같은 몸으로 태어나 후천미륵달마법도로 세계평화와 종교 통일을 위하여 불국정토를 만들 수 있는 자기부처와 자기 정성이 모아진 10층 보탑에 본인의 성명 생년월 시를 새겨 넣어 변하지 않는 금강이 오욕에 오염된 업장을 벗고 전미개오의 대보살도로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혼을 바로잡고, 지구촌 종교의 이그러진 법도를 진작시키어 활연개오의 새로운 불국정토세계의 법연이 멸하지 않는 증산대운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후천미륵 달마 부처님명호로 가름하오며 삼재팔란 소멸과 소원성취 하시옵소서.
기도 중 제일 빠른 기도는 7일 나한기도이며 조상의 명멸 영가와 중음신제도는 10일 지장기도이며 해도해도 안되는 일이 즉시 이루어지는 불사는 16나한 조성불사요 사람 몸 받고 왔다가는 영가의 보답은 지장 부처님과 10층 보탑을 조성하는 불사인 것입니다. 다같이 불사에 동참하시어 천년의 한번드는 지혜의 10층 보탑과 오백나한 오백지장 봉안 불사임을 명심할지어다.

불기 2545년 윤사월 초하루

■ 온라인 번호 ■ 성명 : 곽태일
농협 029-01-167866 하나 은행 157-015402-00108

예약문의 : 02)821-6622 / 821-7767
F.A X : 02)821-7768 / 016)239-3110

한국불교 달마종 총 본산 약사도량 달마선원장